

# 혼계를 통해 본 적석목곽묘 연접분의 사회적 의미

---

하대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고고학 전공

hasson98@naver.com

---

## I. 서론

## II. 분석의 관점: 피장자 집단의 횡적·종적 관계

## III. 피장자 혼계와 적석목곽묘의 연접 현상

## IV. 결론

---

## I. 서론

---

삼국시대 고총기 영남지방에서는 신라와 가야를 중심으로 고대한 봉토를 쌓아 올린 고총(高塚)이 다수 축조되었다. 밀집하여 축조된 고총은 그 크기와 규모에서 주변 경관을 압도·지배하며, 의심할 바 없이 일련의 기념물성(monumentality)을 의도하고 축조한 것이다. 영남지방의 고총은 단독으로 축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한 지점에 일정한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집을 이룬 고총 중 일부는 단순히 근거리에 축조된 것을 넘어서 봉분을 공유하며 이어지게끔 축조되며, 많게는 여덟 기의 봉분이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총을 연접분, 혹은 두 기만 연접된 경우에는 특별히 표형분(瓢形墳)으로 칭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봉토의 연접이 낙동강 이서의 가야 고분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낙동강 이동의 신라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가령 대가야의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700기 이상의 봉분이 확인되지만, 그중에서 연접분은 확인되지 않았다.<sup>1</sup> 반면 신라의 중심인 경주에서는 황남대총 남·북분을 시작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례만 20여 기의 연접분 내에서 적석목곽묘 50기 이상이 확인되었다. 경주 뿐만 아니라 경산, 울산, 안동, 대구, 창녕 등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접분이 확인되어,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봉분의 연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라의 고총에서 확인되

---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3-C17).

1 심현철,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고고광장』 15(2014), 39~69쪽. 지산동 고분군에서 일부 연접과 유사한 형태의 배치가 확인되나(지산동 74호분 주변의 4, 8호, 지산동 34, 35호 사이의 연결석곽 등), 호석의 연결 상태나 매장주체부의 위치로 보아 의도된 연접이 아니라 중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는 연접 현상을 바라보는 고전적인 관점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친연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sup>2</sup> 이는 대체로 현대 핵가족 형태를 고대 고분의 배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모-자녀의 가족관계가 봉분의 연결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혈연관계라는 근원적인 연계가 죽음을 넘어서 무덤의 배치에도 관련된다는 관점은 직관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혼존하는 연접분들의 피장자와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없이, (조)부모와 자손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만을 전제에 둔 결론만 반복되고 있다. 그로 인해 신라 고분의 연접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매우 희소하며, 같은 이유로 왜 대부분의 고총고분은 단독분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개된 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 고분의 봉토는 경관을 지배하고자 의도된 기념물이기도 하며, 연접 현상에 대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신라 엘리트의 수평적·수직적 구분, 장례 규범, 무덤 배치의 경쟁과 타협, 경관 지배 전략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연접축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기술적 관점과 해석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은 연접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이 아니고, 연접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속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선축분과 후축분이 연결되는 건축적 방법의 규명에 주목하거나, 두 무덤의 축조 시점 차이가 전제하는 유물의 시간적 차이를 편년 수립에 활용한다. 즉, 연접분의 사

2 齊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 『昭和九年度古蹟調查報告 1』(京城: 朝鮮總督府, 1937); 박보현, 「積石木櫛墳에 보이는 多葬墓」, 『대구사학』 39(1990), 1~33쪽; 김용성, 「신라 고총의 장제: 경산 임당고총의 예」, 『신라 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서울: 학연문화사, 2009); 박순발, 「墓制의 政治·社會的 含意」, 『荷谷金南奎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하곡김남규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0); 최병현,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의 성격」, 『문화재』 50-4(2017a), 168~197쪽.

회적 의미는 연구 목표가 아니며, 그보다는 연접분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기술적 정보에 집중한다. 반면 해석적 관점은 연접분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등 혈연관계를 전제에 두고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제가 결론인 셈이 되며, 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일반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즉, 연접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혈연·친연관계의 표현이라는 선험적 결론 이외에 다른 것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연접분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이처럼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인골 자료의 부족이다. 인골에 대한 체질적 분석을 통해서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이나 사망 당시 연령을 밝힐 수 있고, 최근에는 mtDNA 분석에 힘입어 고대 분묘의 피장자간 혈연관계를 밝히는 것도 가능해졌다.<sup>3</sup> 하지만 인골의 출토가 극히 드문 적석목곽묘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을 밝히거나 DNA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구체적인 논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라 고분 연구 초기에 제시된 가족묘 가설이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는 방법론적 관점의 제한 때문으로, 기존 관점에서는 연접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만 주목한 나머지 연접으로 구성된 군집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소략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피장자의 정체성의 일단을 알려 주는 착장위세품, 그리고 여타 부장품의 구성이 여러 연접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현존하는 연접분

3 이준정·하대룡·박순영·우은진·이청규·김대환·김종일·한영희,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보』 68(2008), 128~155쪽; D. N. Lee, C. L. Jeon, J. Kang, M. Burri, J. Krause, E. J. Woo, and C. Jeong, "Genomic detection of a secondary family burial in a single jar coffin in early Medieval Korea,"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Vol. 179, No. 4(2022), pp. 585~597.

전체를 대상으로는 검토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현존 자료의 제한으로 피장자의 성별이나 연령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존 연구는 가설 단계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며, 또한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피장자 집단의 수평적, 수직적 구분에 대한 정보 또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이를 토대로 연접분 피장자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단을 파악하여 연접 현상의 내용을 밝히고 그 사회적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 II. 분석의 관점: 피장자 집단의 횡적·종적 관계

---

이 연구에서는 신라 중심고분군의 적석목곽묘에서 나타나는 연접 현상에 대해,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족묘 가설’과 같은 기존의 접근 방식은 연접묘 내의 피장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결론부터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먼저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횡적·종적 관계, 즉 혼계(混系, heterarchy)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고분의 연접 양상을 기술하고 설명을 시도한다.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피장자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주로 수직적 계층화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보통은부장품의 양과 질, 착장위세품의 종류, 봉토의 크기 등 장례에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투입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수직적 분화의 정도를 도시하고 그만큼 계서화된 사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의 접근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이에 반해 피장자 집단의 젠더, 사회적 직능, 개별 피장자 혹은 피장자 집단이 지닌

권력의 성격 등 평면적 분화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설명을 시도한 사례가 희소하다. 하지만 적석목곽묘의 연접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는 피장자 집단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분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피장자 집단의 수직적 분화와 함께, 수평적 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접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수평적 분화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대별을 통해 볼 수 있는 피장자 집단의 분화와 젠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수직적 분화는 착장형 위세품의 차등적 구성과 봉토의 규모 등을 통해 접근할 것이며,<sup>4</sup>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피장자 집단의 분화를 살펴본다.

### 1.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신라의 이식은 주환의 형태와 제작 방식을 기준으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으로 구별된다.<sup>5</sup> 두 종류의 이식은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출토되는데, 일정 계층 이상의 피장자는 거의 모두 이식을 착용하지만 반드시 한 종류의 이식만 착장하며, 황남대총 남·북분과 같이 표형분의 두 피장자가 쌍을 이루어 착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더해 세환이식의 착장자는 대도를 착장하는 경우가 많고 태환이식은 그렇지 않으므로, 대도를 남성성과 연관짓는 관점에서 세환이식의 착장자는 남성, 태환이식의 착장자는 여성으로 추정되었다.<sup>6</sup> 그리고 이를 따라 이식을 젠더 표지로 이해하는 관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위세품 수준과 구성은 봉토의 규모와 연동한다.

5 주경미,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한국미술사학회』 211(1996), 5~28쪽.

6 김원용, 「新羅古墳의 몇가지 特性」, 『동양학』 4(1974), 15~20쪽.

하지만 인골에 의한 성별 판단과 착장 이식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산 임당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재검토에서 이식의 종류와 인골의 성별이 반드시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아래,<sup>7</sup> 신라 고분 전반에서 이식을 착장한 채 확인된 인골의 성별 비교 검토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sup>8</sup> 또한 황남동 95-6번지 1호 적석목곽묘에서는 여성 인골이 세환이식을 착장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sup>9</sup>

이식이 성별 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가설도 제안되었다. 이는 개별 고분의 부장품이 착장 이식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sup>10</sup> 양자의 부장 양상 차이는 주로 위세품과 철기류에서 드러났는데, 세환군에 배타적으로 장식대도가 부장되고, 태환군에는 성시구, 등자, 갑주가 부장되지 않았다(그림1). 철기류에서는 세환이식 착장군(이하 세환군)이 전반적인 부장량에서 태환이식 착장군(이하 태환군)을 압도했으며, 특히 무기류의 출토율, 수량에서 그러했다. 반면 태환군은 철기 부장량이 열세인 가운데 기경구적 성격의 농구류 등에서 한정적으로 세환군보다 출토율이 높았다(그림2). 이처럼 세환군의 부장품 구성에는 일관적으로 무기류를 비롯한 군사력과 관련된 성격의 유물이 강조되었고, 반면 태환군에는 최상위층에서 소수의 예외가 있으나 일관적으로 무기류의 부장이 기피된다.

이러한 부장 양상에서, 세환군과 태환군은 사회복합화 과정에서 나타난

7 이준정 외, 앞의 논문(2008).

8 하대룡,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2016), 124~167쪽.

9 신라문화유산연구원(편), 「경주 황남동 95-6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X』(한국문화재재단, 2017).

10 하대룡, 앞의 논문(2016); 하대룡, 「신라 고분의 착장 이식에 따른 부장양상 차별화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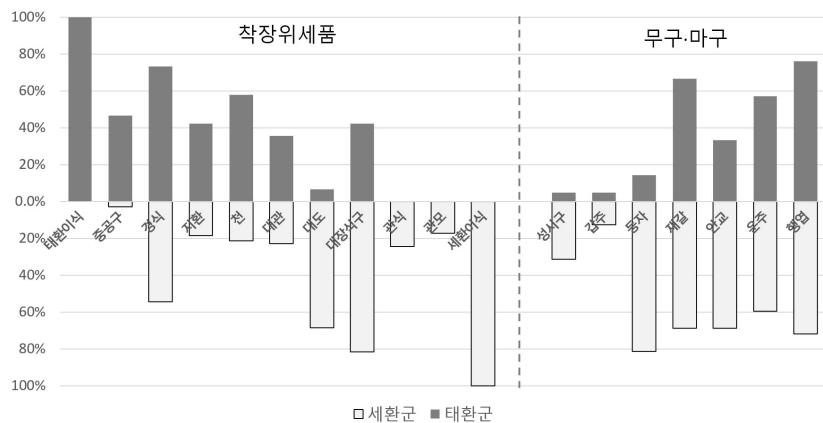


그림1-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 및 무구·마구 출토율 비교<sup>11</sup>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를 함의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기원 전후에서 4세기대에 이르기까지 부장품의 성격 변천 과정을 통해 수장의 기능 변화를 추정하여 보면, 의기류의 축소와 철기, 무기류의 증가로 미루어 보아 제의적인 것에서 지속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으로 변화해 왔던 것으로 지적되었다.<sup>12</sup> 동시에 이사금기까지의 신라 초기 왕은 탄생 신화와 행적, 죽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제왕(司祭王)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13</sup> 사제왕적 성격의 권력이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군사적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이념적 권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력의 공진화<sup>14</sup>를 염두에 둘 때, 권력의 분화와 전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환군과 태환군의 성격을 각각 경제적, 정치

11 하대룡, 위의 논문(2020)에서 전재.

12 권오영, 「斯盧六村의 위치문제와 首長의 성격」, 『신라문화』 14(1997), 7~18쪽.

13 나희라, 「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sup>14</sup> N. Yoffee, *Myths of the Archaic State: Evolution of the Earliest Cities, States and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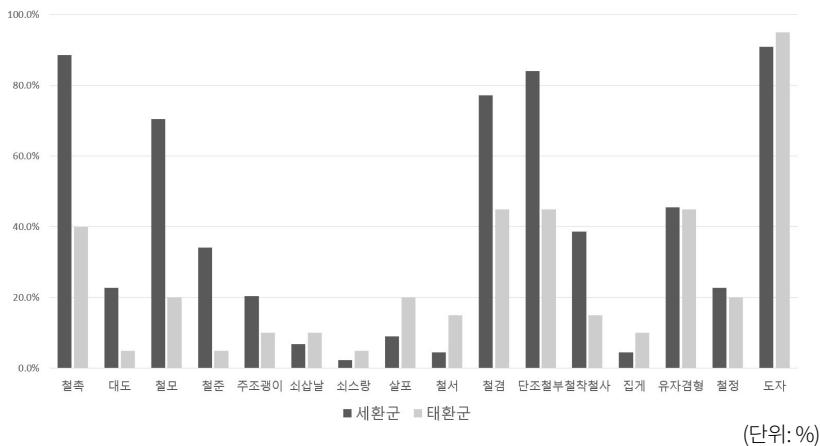


그림2-착장 이식에 따른 철기의 종류별 출토율(세환군 44기, 태환군 20기)<sup>15</sup>

적 권력과 이념적, 종교적 권력을 분장(分掌)한 엘리트들로 볼 수 있으며, 신라 사회의 복합화 과정에서 나타난 엘리트 집단의 평면적 분화로 해석될 수 있다.<sup>16</sup> 착장위세품과 무구·마구, 그리고 철기류의 차별적 부장은 그들이 분장한 권력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7</sup> 이러한 관점에서 세환군과 태환군은 상보적 관계이며, 상하의 위계적 관계라기보다 수평적·횡적 관계에 있다.

15 하대룡, 앞의 논문(2020)에서 전재.

16 하대룡, 앞의 논문(2020).

17 이식에 따른 부장 양상 차별화가 경주뿐만이 아니라 낙동강 이동의 신라 고분 전체에서 동일한 양태로 반복되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신라권 고분 전체가 경주 중앙에서 파급된 사회적 질서에 바탕한 동일한 부장 규범을 공유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피장자의 이식을 기준으로 집단을 대별하고, 연접분 내에서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피장자의 젠더

어느 사회에서나 젠더는 구성원을 구분하는 근원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젠더가 장례와 그 결과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며, 아마도 적석목곽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인골자료가 매우 희소한 적석목곽묘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을 판단하는 작업은 곧 젠더 표지를 어떤 유물로 볼 것인가, 어떤 유물이 성별을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일찍이 일제강점기에 대도가 젠더 표지로 제안된 이래(이하 대도 가설),<sup>18</sup> 관식·관모, 방추차,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등 여러 유물이 젠더 표지의 후보로 제안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대도와 세환이식의 연관성에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표지유물로 받아들여졌다(이하 이식 가설).<sup>19</sup> 하지만 인골자료를 통해 이식과 성별의 부정합성이 제기된 이후, 최근 다시 이식 가설의 원래 근거인 대도로 회귀하여,<sup>20</sup> 칼을 착장한 경우 남성, 착장하지 않은 경우 여성으로 판단하는 관점으로 복귀중이다. 그러나 칼과 남성성을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칼이 남성과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 검토가 실시된 바는 없다.

18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東京: 名著出版, 1916).

19 김용성,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서울: 춘추각, 1998); 박보현, 앞의 논문(1990); 이희준,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한국고고학보』 47(2002), 63~92쪽.

20 최병현, 『신라 6부의 고분 연구』(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476~477쪽; 이한상,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제』(서울: 서경문화사, 2022), 148~149쪽.

한편, 특정 유물의 상징성을 토대로 하는 접근과는 달리, 피장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 천(釧)-부과 가설은 피장자의 신체에 직접 착장한 유물(釧)을 인골고고학의 성별 판단 기준인 인간 신체의 성별 이형성(sexual dimorphism)에 기초하여 계측적으로 해석한 가설이다.<sup>21</sup> 이 가설은 인골자료의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 크기가 통계적으로 일정하게 다르다는 원리를 신체에 착장하는 유물 크기에 적용했다. 분석 대상으로는 금속제 천(釧)을 선택했는데, 먼저 천의 출토 양상에서 대부분 착장 상태임을 확인하고, 제작 기법, 착장 방법 등을 검토하여 천의 크기가 착장자의 손 너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 86점의 계측치를 종합한 결과, 최대 내경이 전부 60~72mm 구간에 분포하며, 그 분포 양상이 두 성별이 아닌 한 성별에 의한 것임을 보였다. 이러한 계측치를 야요이 시대 아동 및 성인 남녀 145인이 착장한 패천, 무령왕릉 왕비의 다리작명은천(多利作銘銀釧), 현대의 금속제 천 자료와 종합하여 비교하여, 여성에 한정된 수치인 것을 확인했다. 즉 신라 고분에서 금속제 천은 여성만 배타적으로 착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천이 부과(부)가 설치되지 않은, 두상부부장군만을 갖는 적석목곽묘에서만 배타적으로 출토된다는 점에서 부과의 설치가 성별과 연관된다고 보는 가설이다.<sup>22</sup>

이처럼 적석목곽묘 피장자와 관련해서는 대도의 남성성을 근간에 둔 이식 가설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를 둔 천-부과 가설이 제기된 상태이다.

21 하대룡,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성별이형성을 기초로 한 釧의 계측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1(2019), 298~343쪽.

22 다만 이 가설의 후반부는 전통적인 신라 고분의 묘곽형식 편년안,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과이 생략된다는 편년관과 충돌한다. 부과이 시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별/젠더와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특정한 유물이 성별과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는 접근 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소한의 생물학적 판단 근거가 존재하는 가설을 따르고자 한다. 다만 두 가설 모두 아직 완전한 검증을 거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 가설과 천-부과 가설 두 가지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검토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다.

### 3. 피장자의 계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의미, 그리고 피장자의 젠더 문제와는 달리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해서는 생전의 복식품으로 인정되는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존재한다. 착장위세품의 출토 양상에서 누층적 조합상이 확인되며, 이것이 경주와 지방을 모두 관통하는 정형성 하에 나타나 복식제도의 존재가 추론된 아래,<sup>23</sup> 계서 단계의 설정에는 대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sup>24</sup>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신라 고분의 착장위세품은 관식, 관모, 대관, 세환·태환이식, 경식, 대장식구, 대도, 천, 지환, 식리, 중공구 등 10여 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식이 가장 기본적인 위세품이며, 피장자의 신분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다양한 위세품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장식구와 관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를 기준으로 계서 단층이 크게 대별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특히 금제 대장식구는 이를 바 최고위계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만 착장하여 다른 고분과는 차별화된다. 다

---

23 이희준, 앞의 논문(2002).

24 김용성, 앞의 책(2009); 최병현, 「신라 전기 경주 월성복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한국 고고학보』 104(2017b), 78~123쪽; 하대룡, 앞의 논문(2019);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박형열, 『고신라 고분군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2021).

표1-적석목과묘 착장위세품 누층 구조의 요약<sup>25</sup>

계서	세환군		태환군		
A	<u>금속제 관식 · 관모</u> 금제 대장식구		<u>금속제 관식 · 관모</u> 금제 대장식구		
B	관식 · 관모 · 식리 中 1 대관	천 · 지환	대관	천 · 지환	
C	대장식구		대장식구		
D	대도		중공구수식		
E	세환이식		태환이식		
F	없음		없음		

만 위세품의 구성은 피장자가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중 어떠한 이식을 착장했는가에 따라 대도의 착장 여부, 중공구+곡옥수식의 착장 여부 등에서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한 <표1>을 기준으로 하여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하고 연접 축조의 양상을 파악한다.

한편 착장위세품을 기준으로 피장자의 사회적 계서를 파악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피장자의 실제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착장위세품은 생전의 복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묘자의 개입이나 간섭에 의해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서 생전의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따라 봉토의 크기, 토기 및 철기의 부장량 등 장례에 투입된 의례적 자원이 일정한 차별적 구성을 갖는다는 것이 알려졌다.<sup>26</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차

25) 하대룡, 앞의 논문(2020)에서 전재. <표1>의 밑줄은 착장이 아닌 부장을 의미한다. 경주 지역에서 금속제 관식과 관모는 착장하지 않고 반드시 부장하며, 식리는 착장과 부장 모두 확인된다.

26) 하대룡, 「신라 적석목과묘 계층화와 의례적 자원 차별화: 지니계수 분석을 출발점으로」, 『영

별적 구성의 양상이 일차적으로 착장위세품이라 구분된 피장자의 수직적 계서에 의해 결정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식의 종류에 따라 철기의 부장양상이, 부과의 설치 여부에 따라 토기의 부장 양상이 차별화된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추론하면 피장자 집단의 수직적·수평적 구분에 따라 철기와 토기의 부장 수량이 결정되는 장례 규범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며, 이러한 바 적석목과묘는 신라 엘리트를 조직화한 사회적 질서가 장례의례를 통해 물질화한 결과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묘자의 개입에 따른 과장이나 축소는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적석목과묘 피장자 집단을 조직화한 수평적·수직적 구분을 토대로 연접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수평적 구분에서 피장자의 착장 이식과 피장자의 젠더가 될 것이며, 수직적 구분에서는 위세품의 구성을 통해 추론한 피장자의 계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피장자의 이식을 비롯한 착장위세품의 구성과 묘곽의 형태(부과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고분이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분석 대상과 분석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 III. 피장자 혼계와 적석목과묘의 연접 양상

#### 1. 분석 대상과 연접 축조의 사례

이 글에서는 신라의 중심고분군인 월성북고분군 내에서 연접분으로 알려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적석목과묘의 연접 양상에

---

남고고학』 97(2023), 213~241쪽.

대해 살펴보고 분석 대상의 선별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연접 방식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며,<sup>27</sup> 여러 종류의 유형이 존재함이 이미 알려져 있다. 연구자마다 세분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신라 고분에서 연접은 수직적 확장보다는 수평적 확장이 주된 방법이며, 선축분의 봉분과 호석 내부에 후축분의 매장주체부를 두는가, 혹은 선축분의 봉분 바깥에 두는가로 크게 구별한다. 즉, 선축분의 봉토와 호석을 일부 제거하고 후축분이 축조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고 선축분에 덧대는 방식으로 후축분이 축조되는지로 크게 대별되는 셈이다. 봉토의 크기와 연접 방식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체로 미추왕릉지구 12구역이나 계림로 등의 소형 묘곽에서는 사방적석이 서로 맞닿아 마치 벌집과 같은 형태로 연접하는 경우가 있으며,<sup>28</sup>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고분의 봉토와 호석을 확인하기가 거의 어려워진다. 이보다 큰 규모의 고분은 개별 매장주체부의 호석과 봉토가 명백히 구분되며, 매장주체부도 어느 정도는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sup>29</sup> 즉, 대체로 봉토가 커질수록 후축분의 봉토와 호석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능한 많은 연접 사례를 토대로 일반 경향을 간취해 내는 것이 분석에 유리하겠으나, 가장 많은 연접 사례를 갖는 다곽분의 경우 피장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이식 등 착장위세품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인왕동 등지의 소형 적석목곽

---

27) 최병현, 앞의 논문(2017b); 심현철, 앞의 논문(2020); 박형열, 앞의 책(2021).

28) 최병현, 위의 논문의 '다곽분' 분류.

29) 여기에는 소수의 예외가 있는데 박형열이 앞의 책(2021)에서 '기생분'으로 분류한 것들이 다. 이들은 선축분 봉토 내부에 설치되며 독립된 호석을 갖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 조사된 황남동 120-1호이다.

묘에서도 다수의 연접 사례가 확인되지만 착장위세품의 양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검토가 곤란하다. 최근 조사를 통해 쪽샘지구에는 F, G 지구 등 여러 지점에서 다수의 연접분이 확인되었지만, 내부조사에 이르지는 못했으므로 역시 제외된다.

이처럼 위세품의 착장이 결여된 소형 적석목곽묘와 미조사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 월성북고분군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연접분은 21기에 이른다. 그중에서 연접이 한차례 이루어진 무덤은 황남대총을 필두로 해서 9개 사례가 있고, 2회 이상의 연접이 이루어져 3기 이상의 묘곽이 하나의 봉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12개 사례이다. 21기의 연접 관계와 연접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보를 종합하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에는 연접의 방향, 선후축분의 피장자가 착장한 이식의 종류, <표1>을 토대로 한 선후축분 피장자의 계서, 그리고 각 묘곽이 부곽(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도 함께 표시했다. 묘곽의 부곽 설치 여부는, II장의 2절에서 다룬 내용을 따른다면 부곽이 있는 경우 남성, 없는 경우 여성이 될 것이다. 혹은 종래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어느 이식을 착장했는지에 따라 남성과 여성 을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연접이 이루어진 것은 황오동 16호 분이 될 것 같다. 황오동 16호는 8개의 호석을 두른 봉토가 연접하며, 그 내부에는 1, 2, 4, 8, 6, 9, 11곽과 아직 내부조사에 이르지 못한 L132, L134, L135호 등 최소 10기의 매장주체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접양상은 복잡하여 두 개의 사례로 구분해서 표시했다. 연접분 전체가 온전히 조사된 것 중에서 가장 다수의 연접이 이루어진 사례는 쪽샘 B1, B2, B3, B4,

---

30 황오동 34호 3곽은 관식을 착장하여 경주 지역의 적석목곽묘 착장 규범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일단 성별의 추정은 천의 착장 여부를 따랐고 계서는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표2-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 연접 사례 종합

묘곽 수	연접 관계	연접 방향	선후죽 부곽 여부	선후죽 착장 이식	선후죽 계서
2	황남대총 남분→북분	북	유→무	세환→태환	A→A
2	미추4A지구 3호 2곽→1곽	서	무→무	세환→세환	E→D
2	서봉총→데이비드총	서	무→무	태환→세환	A→C
2	황오동고분 남곽→북곽	북	무→무	세환→태환	C→B
2	황오동 14호 1곽→2곽	북	유→유	세환→태환	B→D
2	황남동 82호 동총→서총	서	유→유	세환→태환	C→B
2	황남동 109호 2곽→1곽	서	유→유	없음→세환	E→C
2	황오동1호 남곽→북곽	북	유→유	태환→불명	C→?
2	미추6구D지구 1호 1곽→2곽	북	무→무	세환→태환	C→D
3	미추 7구역 5호분→황남232번지 2호	남	?→무	세환→세환	?→C
3 이상	미추 9구역 A호 1곽→3곽	서	유→유	태환→세환	D→E
	미추 9구역 A호 2곽→3곽	북	유→유	세환→세환	E→E
3	황남동 120호→황남동 120-1호	북	유→무	세환→태환	B→?
	황남동 120호→황남동 120-2호	남	유→무	세환→태환	B→B
3	황오동34호 1곽→2곽	북	유→유	세환→세환	C→C
	황오동34호 2곽→3곽 <sup>30</sup>	북	유→무	세환→세환	C→C
3	미추C지구 1곽→2호	서	유→유	세환→태환	D→E
	미추C지구 1곽→3호	남	유→유	세환→태환	D→D
3	황오동100유적 3호→4호	동	유→유	세환→없음	C→F
	황오동100유적 10호→4호	서	유→유	불명→없음	?→F
3	황오동54호 을총→쪽샘B79호	북	유→유	세환→불명	B→?
	황오동54호 을총→쪽샘B81호	동	유→?	세환→불명	B→?
3	황오동 16호 8곽→2곽	북	유→유	태환→세환	B→C
	황오동 16호 2곽→4곽	북	유→유	세환→세환	C→C

	황오동 16호 11곽→1곽	남	유→무	세환→세환	D→B
4	황오동 16호 11곽→쪽샘L134호	북	유→무	세환→불명	D→?
	쪽샘 L135호→황오동 16호 1곽	북	?→무	불명→세환	?→B
4	황남동 95-6번지 2호→1호	남	무→무	세환→세환	C→D
	황남동 95-6번지 1호→5호	동	무→무	세환→없음	D→F
4	황오동100유적 11호→1호	북	유→무	불명→세환	?→D
	황오동100유적 1호→2호	북	무→무	세환→세환	D→D
5	황오동100유적 11호→7호	서	유→유	불명→태환	?→D
	쪽샘B2호→B1호	북	유→유	세환→세환	D→C
	쪽샘B1호→B4호	북	유→유	세환→세환	C→E
	쪽샘B2호→B3호	남	유→유	세환→세환	D→D
	쪽샘B2호→B6호	남	유→유	세환→태환	D→D

B6호분으로 5기의 매장주체부가 4회 연접했다.

일반적으로 연접 축조의 결과물이 두 기에 그친 경우는 표형분으로, 세 기 이상인 경우는 연접분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연접 양상을 본다고 할 때 양자를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는 양자를 합쳐서 살펴보고, 검토 이후에 표형분은 신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 부터 부부묘로 여겨져 왔으므로, 차후에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sup>31</sup>

## 2. 연접 축조와 피장자의 젠더

이제 연접 사례별로 피장자의 성별과 차장 이식, 계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각각 검토할 차례이다. 먼저 천-부곽 가설의 관점에 따라 선후축분의 성

31 반면 표형분을 부부묘로 보지 않은 시각도 있다. 가령 김선주는 출토 유물만으로 피장자 성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표형분 피장자를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김선주, 「경주 지역 瓢形墳의 특징」, 『경주문화연구』5(2002), 67~89쪽.

별 구성을 정리하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후축분 모두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37건의 연접 중에서 33건이었는데, 선축 남성 → 후축 남성의 경우가 가장 많아 19건(57.6%)이었고, 선축 여성 → 후축 여성의 경우도 7건(21.2%)이었다. 즉, 동성 간의 연접이 전체 사례 중에서 80%에 근접해 주목된다. 한편 이성 간의 연접에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선축 남성 → 후축 여성의 경우는 7건(21.2%)으로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확인되는 데 반해, 선축 여성 → 후축 남성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묘곽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상부부장군만 갖는 묘곽 형식(최병현의 2C식)이 선축이고 부곽 혹은 부장궤 등 족하부의 부장부를 갖는 묘곽 형식(최병현의 1A, 1B, 2A, 2B식)이 후축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편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묘곽 형식 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병현의 편년과 같이,<sup>32</sup> 현재의 자료 상 등장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2C식이 모든 1A, 1B, 2A, 2B식보다 늦은 것은 아

**표3-천-부곽 가설을 전제로 한 연접 사례의 성별 구성(남성묘 36기, 여성묘 17기)**  
(단위: 건, %)

선축분 성별 → 후축분 성별	연접 사례 수	백분율
남성→남성	19	57.6
남성→여성	7	21.2
여성→남성	0	0.0
여성→여성	7	21.2
계	33	100.0

32 최병현, 『新羅古墳研究』(서울: 일지사, 1992); 최병현,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복고분군의 묘제 전개」, 『문화재』 49-3(2016), 154~201쪽.

니며, 신라 전기 1~2a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공존하고 있다.

〈표4〉는 연접분의 묘곽 형식과 편년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그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무부곽식이 모든 유부곽식보다 늦은 것이 아니며, 전함형곡선을 그리며 유부곽식이 쇠퇴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일정한 공존기를 거친 다음 무부곽식만 존재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부곽식은 적석목곽묘의 가장 늦은 단계까지 존재한다. 요컨대 〈표2〉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묘(2C) 이후에 남성묘(1A~2B)가 연접하지 않은 것은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규제가 작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여성이 선축묘의 피장자인 경우 남성이 후축묘의 피장자가 될 수 없는 모종의 규제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연접분 내에서 남성묘와 여성묘가 혼재할 경우, 반드시 남성묘로 시작해서 여성묘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황남대총(남→여), 미추왕릉 6구역 C지구 1, 2, 3호분(남→여←남), 황오동 16호 1곽과 주변 유구들(남→여), 그리고 황오동 100유적 11곽과 1곽(남→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성에 따른 묘곽 형식의 변천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2C형식이 모든 1A~2B식보다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유구 배치상의 정형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접분에서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배치 규정이 대체로 이러한바, 이제 표형분의 성격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표형분의 고고학적인 정의는 선

---

33 최병현, 위의 논문(2016)의 상대 편년에 따름.

34 최병현의 편년에 따르면 2a기는 4세기 말·5세기 초, 2b, 3a, 3b기는 각각 5세기 전반, 중반, 후반, 4a기는 5세기 말·6세기 초, 4b기는 6세기 전엽으로 두는데, 여기에서는 이 연대 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묘곽의 형식과 상대편년의 관계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표4-연접분의 묘과 형식과 편년<sup>33</sup>

연접분 \ 분기 <sup>34</sup>	2a	2b	3a	3b	4a	4b
황남대총 남북분	남 → 1A	여 2C				
미추4A 3호 2곽, 1곽						여 여 → 2C 2C
서봉총, 데이비드총					여 → 2C	여 2C
노서동215번지, 호우총						여 여 → 2C 2C
황오동고분 남북곽				여 여 → 2C 2C		
황오동14호 1곽, 2곽	남 → 1A	남 1A				
황남동82호 동서총				남 → 1B	남 1B	
황남동109호 2곽, 1곽			남 → 1B	남 1B		
황오동1호 남북곽				남 남 → 1B 1B		
미추9구A호 1, 2, 3곽					남 → 1B	남 남 → 1B 1B
미추C지구 1, 2, 3호					남 → 1B	여 2C
황오동16호 8, 2, 4곽				남 남 남 → 1A 1A 1B		
황오동16호 8, 6, 9곽				남 남 → 1A 1A	여 2C	
황오동16호 11, 1곽					남 → 1B	여 2C

쪽샘 B2, 1, 4호			남 남 → 1A 1B	→	남 1B
쪽샘 B2, 3호			남 남 → 1A 1A		
쪽샘 B2, 6호			남 남 → 1A 1B		

후를 달리하는 2기의 봉토분을 의도적으로 근접 배치하여 봉분 일부가 서로 겹치게 배치한 무덤으로,<sup>35</sup> 이러한 표형분들은 지금까지 부부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간 표형분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발굴된 것은 황남대 총 남북분(남→여), 서봉총·데이비드총(여→여), 황오동 14호분 1·2곽(남→남), 황오동 1호분 남북분(남→남), 황오동 고분 남북곽(여→여) 정도인데, 이 글의 성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남녀 연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황남대총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동성 간의 연접이다. 종래의 이식 가설의 관점에서 본다 하여도, 세환-태환이 짹을 이루는 표형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표형분이 부부 한정의 무덤 배치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모든 표형분이 부부묘라는 가설은 재고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것은 연접이 2회 이상 일어나는 연접분에서도 이처럼 같은 성별끼리 군집하는 양상은 마찬가지여서, 특정 성별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3>~<표4>에서 보듯이, 미추 9구역 A호 1, 2, 3곽, 황오동 16호 8, 2, 4곽, 쪽샘 B2, 1, 4곽과 같이 남성 피장자 3인의 연접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여성 간의 연접은 1회에 그쳐, 현재 확인된 사례 중에 여성 피장자 3인이 연접된 경우는 없다.<sup>36</sup> 또 양성이 혼재하는 경우는

35 최병현, 앞의 책(1992), 155쪽.

36 다만 다수의 연접분이 확인된 쪽샘 B지구나 G지구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축분의 피장자는 남성으로 시작되어서 종말분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끝나는, 남→남→여(황오동 34호 1, 2, 3곽, 황오동 16호 8, 6, 9곽), 혹은 남→여→여(황오동 100유적 11, 1, 2호)와 같은 형태가 많다.

이처럼 표형분은 동성 2인 간의 연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별 연접 사례를 종합했을 때에도 동성 2인 간의 연접이 80%를 넘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단 부부관계는 제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장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일단 <표4>에서 보다시피, 연접 사례 간의 시간적 격차는 크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의 연접분은 최병현의 편년안 내에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에 걸쳐 있는 정도이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쪽샘 B2, 1, 4호인데 세 분기에 걸쳐 있다. 대부분의 연접 사례 간 시간적 격차는 아무리 커도 반 세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사례 내에서 그 간격은 더 작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간격 차이로 인해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부부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최근 쪽샘 B1~3호의 경우에는 피장자 간 관계를 직계 가족보다는 (동세대 내의) 친족 단위로 본 경우가 있다.<sup>37</sup>

하지만 이는 현 시대의 평균수명의 관점에서 세대를 판단한 것이다. 신라 시대의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헌 자료를 통한 추정과 인골 자료를 통한 추정 사례가 있다. 전자는 통일신라시대<sup>38</sup> 신라촌락문서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당시 평균수명을 20~25세로 추정했다.<sup>39</sup> 한편 임당 고분

3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쪽샘地圖 新羅古墳 VII: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38 신라촌락문서의 작성시기는 문서의 乙未年을 근거로 695년, 755년, 815년, 875년 중 하나라고 한다. 정상수·최봉인, 「경산 임당지역과 김해 예안리 고분 출토 인골의 평균수명」, 『야외고학』 22(2015)에서 재인용.

39 가네가와 도시유키, 「新羅《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한국사연구』 30(1980), 1~33쪽.

이는 영유아의 사망을 포함한 수치로, 고분에서는 주로 성인 인골이 출토되고 영유아의 인골은 희소하므로, 인골을 대상으로 한 사망 평균 연령보다는 낮게 산출된다.

군 출토 인골을 통한 추정에서는 4~6세기 중반까지의 사망 평균 연령을 대체로 약년 이상~성년 초기(19세 이상~30세)로 본 사례가 있고,<sup>40</sup> 최근의 재검토에서는 응관묘(아동)를 제외했을 때 남성은 37.7세, 여성은 34.6세로 추산되었다.<sup>41</sup> 그리고 예안리 고분군 인골 분석 결과를 종합한 사례에서는 25세(1~6세 포함), 혹은 34세(1~6세 제외)의 사망 평균 연령이 도출된 바 있다.<sup>42</sup> 이를 종합하면 신라시대에 영유아기를 생존했을 때의 기대여명은 대략 30년 가량으로 볼 수 있고, 영유아기의 사망을 포함한 평균수명은 크게 낮아져서 신라총락문서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상의 자료는 적석목곽묘 피장자군과는 계층, 지역, 시대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 하지만 동시대와 그를 전후한 평균 사망 연령에 대한 추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를 생존했을 때 기대여명이 30년 남짓이라 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늦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세대별 재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같은 분기 내에서 연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장자들을 반드시 동세대 내로 볼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보아 세대 간의 연령차는 20년 미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대 간 간격이 그만큼 짧았다면, 크게 보아 황남대총 남북분의 피장자 간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녀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sup>43</sup> 물론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만한 수단

40 정상수, 「新羅 古墳을 통한 古代 人口 研究: 慶山 林堂 및 大邱 時至 遺蹟을 中心으로」,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41 정상수·최봉인, 앞의 논문(2015), 27~52쪽.

42 김두철,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 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서울: 학연문화사, 2000).

43 물론 연접분의 피장자가 반드시 직계 혈연관계인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증이 필요하다. 차세대의 피장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친연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연계가 없는 피장자의 무덤을 조묘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연접시켰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이 존재하지 않지만, 평균 수명이 오늘날의 절반 미만에 불과한 시대인 만큼 연접분의 피장자 간 관계를 반드시 동세대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연접이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난 사례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고, 대체로 두 분기 이내에서 연접이 끝나므로 1~2세대, 아무리 길어도 3세대 내에서만 연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대는 새로운 지점에서 단독분 혹은 연접분을 조영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 3. 연접 축조와 피장자의 착장 이식

다음으로 착장 이식과 연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5>는 <표2>를 토대로 개별 연접 사례 내에서 선축분과 후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32개 사례 중에서 선후축분 모두 확인 가능한 25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선축분이 세환군인 경우가 전체의 90%에 가깝다는 점이 주목된다. 선후축분 모두 세환군인 경우가 확인 가능한 연접 사례의 절반 가까이 되고, 선축 세환군, 후축 태환군인 경우도 전체의 1/3을 넘는다. 반면 선축이 태환군인 사례는 4건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모두 세환군이 후축되며, 선후축 모두 태환군인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착장 이식에 따라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고, 그에 따라서 착장위세품과 유물의 구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되, 착장 이식 자체로 계서가 나뉘거나 시간적 선후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환군 간의 선후축 연접이 없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며, 이 역시 의도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태환군 간의 연접이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 또한 모종의 장례 규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될 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해명하기가 어렵

표5-연접분의 연접 사례별 착장 이식 구성<sup>44</sup>

(단위: 건, %)

선축분 착장 이식 → 후축분 착장 이식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선축분의 착장 이식률
세환군→세환군	12	48.0	세환이식 선축 88
세환군→태환군	10	40.0	
태환군→세환군	3	12.0	태환이식 선축 12
태환군→태환군	0	0.0	
계	25	100.0	100.0

다. 앞서 성별과 관련해서도 선축분의 피장자가 여성인 경우 후축분에 남성이 묻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일련의 추론이 가능하다. 즉,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서 어떤 조건이 일치할 경우(여성→남성 또는 태환군→태환군), 조묘자가 특정한 선축분에 이어서 후축분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실행 가능하려면,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축분의 피장자와 후축분의 피장자, 그리고 후축분의 조묘자까지 3자는 서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접이 1~2세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면, 이들은 생전에서부터 관계를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식이 성별의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이 여성의 두 배 가까운 점, 동성 간의 연접이 대부분인 점, 그리고 이성 간 연접이 반드시 여성 피장자가 묻힌 고분에서 끝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들의 관계는 현대적인 형태의 가족 구성, 즉 부모-자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4 세환군 분묘 30기, 태환군 분묘 14기, 불명 또는 이식 없음 7기.

#### 4. 연접분 내의 계서 구성

무덤을 연접하는 행위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 혹은 후축분 피장자의 권위를 강화, 조작하려는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위계의 피장자가 묻힌 선축분을 선택하여 후축분을 조영하여 사회적 관계를 창출 혹은 조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면 선축분과 후축분 간의 계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검토하기 위해 <표2>를 토대로 선후축 관계에 있는 고분 간의 계서 변동을 정리한 결과가 <표6>이다.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은 선후축분이 모두 A군이므로 선후축분의 계서는 동급이고, 서봉총과 데이비드총은 전자가 A군, 후자가 C군이므로 후축분의 계서가 하강한 것이 된다.

정리 결과를 보면, 선축분과 후축분의 계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6건의 연접 중에서 26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양자의 계서가 동일한 경우가 10건, 후축분의 계서가 더 높은 경우가 5건, 더 낮은 경우가 11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동일하거나 낮아졌다. 후축분의 계서 변동은 대체로 1~2 등급 내에서 일어났고, 3등급 차이가 났던 사례는 황오동 100유적 3, 4호의 사례가 유일한데, 대장식구 착장군인 C군에 이어 착장위세품이 없는 F군의 연접이 이루어졌다.

한편 계서에 따른 봉토의 크기 차이를 살펴보면, A계서가 30m를 경계로 다른 등급을 압도하는 가운데(그림3의 대형 봉분), B, C 계서는 평균 봉토 직경 17m 가량으로 양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그림3의 중형 봉분), 봉토직경 11~12m를 경계로 D, E, F 계서(그림3의 소형 봉분)와 단계적으로 차별화되는

표6-연접 사례별 피장자 계서 변동

(단위: 건, %)

피장자 계서변동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선후축분 계서 동급	10	38.5
후축분 계서 상승	5	19.2
후축분 계서 하강	11	42.3
계	26	100.0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대체로 금제 대장식구의 유무로 A계서와 B, C 계서가 차별화되고, 다시 대장식구의 착장 여부로 B, C 계서와 D, E, F 계서가 차별화되는 양상과 상통한다. 즉, 착장위세품에서 피장자 계서를 대별하는 기준에 따라, 대장식구 미착장 계서는 소형 봉분(12m 미만)을, 은제·금동제 대장식구 착장 계서는 중형 봉분(12~30m)을, 금제 대장식구 착장 계서는 대형 봉분(30m 이상)을 가져, 봉토 크기의 차별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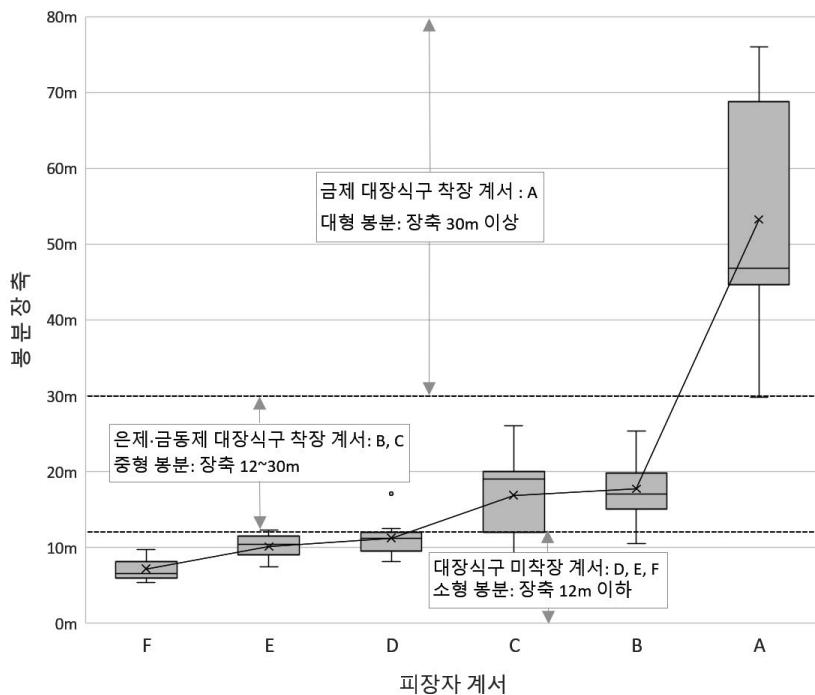
이처럼 봉토 규모와 계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분석 대상 고분의 봉분 크기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26건의 연접 중에서 18건이 동일 규모 간의 봉토에서 연접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형→중형, 중형→소형으로 더 작은 규모의 봉분이 후축된 경우는 6건, 소형→중형으로 더 큰 규모의 봉분이 후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표7).

만약 연접이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고, 후축분 조묘자에게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허용된다면, 보다 사회적 계서가 높은 선축분에 의지하여 후축분을 만드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므로, 후축분의 조묘자는 적극적으로 낙차가 큰 상위위계의 선축분에 후축하여 장례를 지내고자 경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더 큰 규모의 봉분에 후축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고, 반대로 계서가 낮은 선축분은 사회 전략의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연접은 기피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급 봉분에서 연접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일 많아서 70%가량이고(26건 중 18건), 후축분의 규

표7-연접 사례별 봉분 규모 변동

(단위: 건, %)

봉분 규모 변동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선후축분 규모 동급	18	69.2
후축분 규모 상승	2	7.7
후축분 규모 하강	6	23.1
계	26	100.0

그림3-계서(x축)와 봉분 크기(y축, 봉분장축, m)의 관계(n=39)<sup>43</sup>

45 하대룡, 앞의 논문(2023)에서 일부 수정. A군의 최솟값은 금령총이다.

모가 더 작은 경우는 1/4에 못미치는 6건에 불과하다. 반대로 후축분의 규모가 선축분보다 큰 경우도 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바 선후축분 간의 계서 차이는 대부분 동일 계서 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묘자 간 경쟁이나 선축분에 기댄 권위 강화 전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대체로 같거나 한 등급 차이 정도의, 등급이라 할 수 있는 봉분 간에서 연접이 일어났고, 피장자 계서의 낙폭이 큰 사례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앞서 성별과 착장 이식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상태로 일정한 규범에 따라 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상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연접분의 축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연접분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히려 더 많은 적석목곽묘가 연접을 이루지 않고 단독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독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일정한 공간 안에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석목곽묘의 연접은 대체로 계서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나타나지만, 왜 어떤 고분에서는 연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설명이 어렵다.

## 5. 혼계의 관점으로 본 적석목곽묘의 연접 현상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젠더, 착장 이식, 계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연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한 결과, 각각의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먼저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현존 모든 연접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천-부곽 가설의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선축분 피장자는 남성이었고, 후축분의 피장자도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남성-여성의 조합을 보이는 선후축분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남성의 순서로 연접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모종의 장례 규범에 의해 제한된 결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착장 이식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이며, 세환-세환의 조합이 가장 많아 절반을 차지하며, 이식 가설에서 부부의 조합으로 여겨졌던 세환-태환의 조합은 절반이 되지 못했다. 천-부곽 가설에서 여성-남성 조합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식의 경우에는 태환-태환의 조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확률적으로 보아 우연의 결과로 볼 수 없고 미찬가지로 장례 규범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식 가설의 관점에서 이상의 결과를 본다면, 남성-남성의 조합이 가장 많고, 여성-여성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젠더와 착장 이식은 신라 엘리트를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부장품의 구성에서 상하 수직적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만큼 연접 축조가 자유롭게 구성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존하는 연접 사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평면적이고 횡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배치된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한 조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양상은 연접배치에 있어 규범 혹은 규제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어느 성별 가설의 관점에서 보든, 연접분을 현대적인 관점의 핵가족적 구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가족묘라고 한다면 왜 수많은 단독분이 존재하는지,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형분일수록 단독분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피장자 집단의 수직적 구분의 측면에서는, 첫째로 착장위세품의 구성을 토대로 한 계서 구분과, 둘째로 봉토의 현상적인 이해, 즉 봉토의 크기와 착장위세품의 구성 간에서 일련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대장식구와 봉분 크기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석목곽묘의 연접은 대체로 동일 계서 내에서 일어났으며, 선축분의 봉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위위계 고분이 경쟁적으로 축조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또한 계서를 초월하여 경쟁적으로 연접하는 것에 대한 모종의 통제를 상정케 한다. 한편

〈그림4〉는 쪽샘 H, L 지구와 대릉원 일대에서 크기가 알려진 봉분 110기의 연접 여부를 도시한 것이다.<sup>46</sup>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보면 봉분이 클수록 연접을 기피하는 경향이, 봉분이 작을수록 연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피장자의 계서가 높을수록 연접을 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피장자의 계서가 낮을수록 연접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요컨대 연접분은 핵가족적 구성의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연접분이 친연관계의 표현이라는 관점은 봉분이 클수록 단독축조를 선호하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대형분의 피장자는 혈연관계가 없었거나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단독분이 존재하는 점은 역설적으로 연접분이 가족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곽분과 소형 적석목곽묘에서는 연접이 매우 활발하고, 대릉원 일대의 최고위계 고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접의 비율이 낮은 점은, 결과적으로 하위위계 피장자 집단에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결연관계를 무덤의 배치를 통해 이루어 나갔음을 상정하게 한다. 인척집단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묘역의 독점과 봉토의 계속적 연결을 통한 경관지배를 위해 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무덤을 축조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분석 대상 연접묘가 대부분 1~2세대 내에서, 많아도 5인 미만의 피장자로 완료된다는 점은 연속성보다는 동일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집단들의 수평적 결연관계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많은 수의 적석목곽묘가 단독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단독분과 연접분이 공존하는 모습은 봉토의 연접이 일련의 합의와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거기에 더해 연접분의 피장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46 〈그림4〉의 봉분 장축과 단축 길이는 다음의 연구와 보고서에서 인용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VIII: H·L 지구 분포조사 보고서』(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윤상덕,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중기의 왕릉 추정」, 『한국고고학보』 93(2014), 164~191쪽; 심현철, 앞의 논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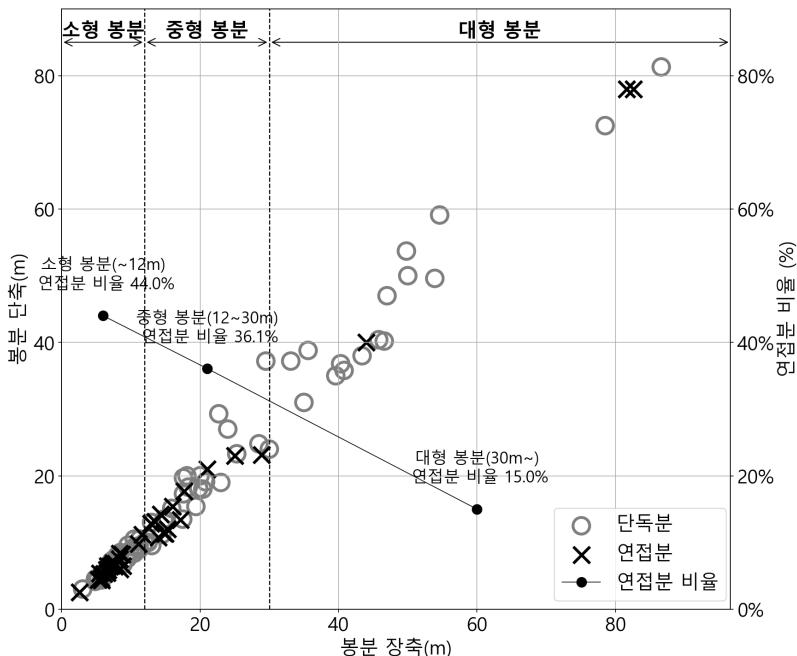


그림4-장 · 단축이 알려진 봉분 110기와 연접 여부<sup>47</sup>

계서에 있었다는 점은, 유사한 횡적 위치에 있었던 계층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혈연관계를 비롯한 친연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나, 적어도 핵가족적 구성이 제일원칙이 되어 연접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태환-태환 연접의 사례가 전무한 점, 일정 기간 유부곽식과 무부곽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무부곽→유부곽 연접의 사례도 전무한 점, 4분기를 넘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연접분의 축조가 일

47 30m를 초과하는 대형분에서는 연접분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 주목된다. 자료는 윤상덕, 위의 논문(2014); 심현철, 앞의 논문(202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앞의 책(2017)의 자료를 종합했다.

정한 규범과 통제하에 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연접분의 축조는 피장자 집단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집단 간의 합의 위에서 이를 통제하는 규범이 있었던 것이다.

## IV. 결론

---

지금까지 피장자 집단의 혼계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연접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석목곽묘의 연접은 자유롭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연접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25건 중에서, 태환군-태환군 조합의 연접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양상, 그리고 유부곽식과 무부곽식이 황남대총 남북분 이후 공존하지만, 33건의 연접 사례 중에서 무부곽식→유부곽식 연접도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양상은 특정한 연접 조합이 금지되는 규범 또는 규제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작동하려면 선축분의 피장자의 성별, 착장 이식 등 피장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적석목곽묘의 연접은 핵가족적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식 가설, 천-부곽 가설 어느 입장에서 보아도, 표형분의 동성 조합이 너무 많다. 전체적인 연접 양상 내에서도 동성 조합의 비율이 너무 높아, 부모-자녀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더 큰 틀에서, 연접분을 혈연관계의 표현으로만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림4>에서 본 바와 같이, 대형분일수록 연접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접분이 혈연관계의 표현이라면, 후손 집단의 유대 강화나 과시 전략 등의 목적으로 대형분의 후축분이 선호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 또한 누대에 걸친 장기간의 연접이 드물고, 대부분 한두 세대 내에서 끝나는 점도 이를 지지한다.

넷째, 연접은 여러 축조집단의 합의와 타협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더 크다. 황오동 16호와 같이 최초 4기의 단독분이 연접을 통해 성장하다가 마지막에는 8기의 봉분이 이어지는 양상,<sup>48</sup> 반면 근거리에 존재하는 연접분이 마지막 까지 이어지지 않는 양상 등은, 연접이 축조집단의 합의와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경관지배의 관점에서 연접은 과시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광범위한 대형의 연접분을 만드는 것이 과시 전략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으나 대부분 한두 세대, 4기 미만의 연접에서 끝난다. 이런 점에서 연접은 단기간의 결연관계나 유대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대부분의 연접은 동일한 계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봉분의 규모와 피장자 계서 간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보았다(그림3). 봉분 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70%의 연접이 동일한 계서 내에서 일어났고, 이를 넘어서는 연접은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적석목곽묘의 연접분이 부부관계, 핵가족적 구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위 계층의 고분에서 연접이 더 활발한 점, 동일 계서 피장자 간 연접이 대부분인 점, 소수의 피장자가 단기간 연접되는 점 등의 정황은 유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중위-하위 엘리트의 횡적 연대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는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를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범주의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의 편집 과정에서 최근 쪽샘 J지구에서 J171호(단곽식, 선축)와 J172호(주부곽식, 후축)가 조사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경주지역

48 최성우, 「V. 고찰 1. H·L지구 内 기조사고분 검토: 황오리 16호분을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위의 책(2017).

에서 유일한 단과식 → 주부과식의 축조 순서를 가진 연접분인 셈이며,  
이 글의 분석(표2, 표3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다.  
조사 중인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는 추가하지 못하나 정식 보고 이후 후  
고를 약속드린다.

## 참고문헌

### 1. 논저

- 가네가와 도시유키, 「新羅《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한국사연구』 30, 198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VII: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VIII: H·L 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권오영, 「斯盧六村의 위치문제와 首長의 성격」, 『신라문화』 14, 1997.
- 김두철,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 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 古代史 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서울: 학연문화사, 2000.
- 김선주, 「경주지역 瓢形墳의 特징」, 『경주문화연구』 5, 2002.
- 김용성,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 서울: 춘추각, 1998.
- 김용성, 「신라 고총의 장제: 경산 임당고총의 예」, 『신라 王도의 고총과 그 주변』, 서울: 학연문화사, 2009.
- 김원용, 「新羅古墳의 몇가지 特性」, 『동양학』 4, 1974.
- 나희라, 「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보현, 「積石木槨墳에 보이는 多葬墓」, 『대구사학』 39, 1990.
- 박순발, 「墓制의 政治·社會的 含意」, 『荷谷金南奎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하곡김남규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0.
- 박형열, 『고신라 고분군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2021.
- 신라문화유산연구원(편), 「경주 황남동 95-6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X』, 한국문화재재단, 2017.
- 심현철,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고고광장』 15, 2014.
-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윤상덕,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중기의 왕릉 추정」, 『한국고고학보』 93, 2014.
- 이준정·하대룡·박순영·우은진·이청규·김대환·김종일·한영희,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8, 2008.
- 이한상,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제』, 서울: 서경문화사, 2022.
- 이희준,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한국고고학보』 47, 2002.

- 정상수, 「新羅 古墳을 通한 古代 人口 研究: 慶山 林堂 및 大邱 時至 遺蹟을 中心으로」,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상수·최봉인, 「경산 임당지역과 김해 예안리 고분 출토 인골의 평균수명」, 『야외고고학』 22, 2015.
- 주경미,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한국미술사학회』 211, 1996.
- 최병현, 『新羅古墳研究』, 서울: 일지사, 1992.
- 최병현,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복고분군의 묘제 전개」, 『문화재』 49-3, 2016.
- 최병현,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의 성격」, 『문화재』 50-4, 2017a.
- 최병현, 「신라 전기 경주 월성복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한국고고학보』 104, 2017b.
- 최병현,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최성우, 「V. 고찰 1. H·L지구 内 기조사고분 검토: 황오리 16호분을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VIII: H·L 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하대룡,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 2016.
- 하대룡,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성별이형성을 기초로 한 鍤의 계측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1, 2019.
- 하대룡, 「신라 고분의 착장 이식에 따른 부장양상 차별화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14, 2020.
- 하대룡, 「신라 적석목곽묘 계층화와 의례적 자원 차별화: 지니계수 분석을 출발점으로」, 『영남고고학』 97, 2023.
- 齊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 『昭和九年度古蹟調查報告 1』, 京城: 朝鮮總督府, 1937.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 東京: 名著出版, 1916.
- Lee, D. N., Jeon, C. L., Kang, J., Burri, M., Krause, J., Woo E. J., and Jeong, C., "Genomic detection of a secondary family burial in a single jar coffin in early Medieval Korea,"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Vol. 179, No. 4, 2022.
- Yoffee, N., *Myths of the Archaic State: Evolution of the Earliest Cities, States and Civil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적석목곽묘의 연접 현상을 혼계(heterarchy)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연접 축조를 둘러싼 사회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피장자 집단을 수직적·수평적으로 구분한 요소를 찾아, 선축분과 후축분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수직적 구분은 차장위세품의 조합과 구성을 통해 세부적으로는 6개 계서로, 큰 틀에서 3개 단위로 파악했고, 수평적 구분은 젠더와 차장이식의 종류를 기준으로 했으며, 젠더는 종래의 이식 가설과 천-부곽 가설을 동시에 검토했다.

분석 대상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연접분 21기의 매장주체부 36기였으며, 검토 결과 연접 현상에서 매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다. 30여 회의 연접에서 선축-후축분의 피장자가 모두 태환이식을 차장한 사례, 그리고 단독곽-주부곽의 순으로 축조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성별 가설 중 어느 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동성 간 조합이 너무 많아 부부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접이 비슷한 계서 내에서 이루어진 점, 대형분일수록 연접을 기피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접 배치에서 특정한 조합이 제한되는 규제의 존재 가능성 to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적석목곽묘 연접분이 핵가족적 구성의 표현이라는 기준의 가설에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대형분이 연접을 선호하지 않는 점에서 경관 지배를 통한 과시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체로 동일한 계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위-하위 엘리트의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범주의 횡적 연대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투고일 2024. 6. 20.

심사일 2024. 7. 24.

게재 확정일 2024. 8. 19.

주제어(keywords) 신라(Silla), 적석목곽묘(stone-piled wooden chamber tomb), 연접분(connected burial mounds), 혼계(heterarchy)

## abstract

### Connected Stone-Piled Wooden Chamber Tombs and the Heterarchical Structure of Silla Society

**Ha, Daeryong**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onnected stone-piled wooden chamber tombs (adjacent burial mounds) from the perspective of heterarchy. To achieve this, vertical and horizontal classification factors of the burials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itial and subsequent burials were examined. Vertical classifications were determined by categorizing burial adornments into six units, whereas horizontal classifications were based on sex and earring types.

The analysis encompassed 36 burial chambers from 21 adjacent burial mounds. The results revealed unique patterns in the connected tombs. In over 30 instances of connection, there were no cases where both the initial and subsequent burials had the same types of burial earrings, nor were there any instances of tombs built in the order of a single chamber followed by construction of an auxiliary burial chamber later. In terms of sex, the high frequency of same-sex combinations made it difficult to view these as marital pairs. Additionally, most connections occurred within similar rank levels and larger tombs tended to avoid such connections.

Thes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e existence of specific regulatory restrictions on the combinations of adjacent burial arrangements. They also indicate the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hypothesis that connected stone-piled wooden chamber tombs represent nuclear family compositions. The tendency of larger tombs to avoid connections challenges the idea that such arrangements were part of a display strategy based on landscape dominance. The predominance of connections within the same rank suggests horizontal alliances beyond kinship among the mid- to lower-ranking elites.